



A Study on Determinants of Household Income Source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Hwang Myung Ji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understanding the sources of household income among grandparent-headed families in Korea and thus tries to provide some suggestions on social welfare policies to improve economic conditions surrounding them. For statistical analysis, data drawn from the 2010 Korean Population Census were used and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among respondent groups were extracted from the original data set. A logistic regression method was applied to identify socioeconomic factors of income sources types among grandparent-headed families. Results suggest that those living alone, male, young, and more educated grandparents among the respondent group were found to manage their financial status well. However, among the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under study, those with grandchildren under the receipt of public assistance, and grandparents with less educational attainment, older age, female status tended to depend more on the public assistance and the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ir adult children. The participants living in rural area are more likely to rely on the income sources of adult children and public assistance.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2014 KKIT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Grandparent-headed families, Household income source, Logistic regression

ARTICLE INFO: Received 10 December 2013, Revised 29 January 2014, Accepted 14 February 2014.

1. 서론

한국의 가족 구조와 기능은 산업화, 여성들의 사회

적 활동 증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같은 다양한 인구 및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급변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와 건강수준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 단독가구, 독거노인, 그리고 조손가구의 규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

*#206 College of Humanities, Korea University, Sejong-ro 2511, Sejong City. E-mail Address: mojohwang@korea.ac.kr

데 조손가구는 1 세대 조부모와 3 세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가족구조상 성인자녀가 결혼된 형태를 의미한다 [1, 8].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정위탁서비스를 받고 있는 총 15,486명의 아동 중 약 66%에 달하는 10,205명의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는 조손가정으로 알려졌다 [2].

우리나라는 주로 1990년대, IMF를 거치면서 가족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조손가정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조손가정에 관한 관심과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표면화되면서 1995년 인구주택총 조사에서는 2세대 가구 가운데 조손가구를 따로 분리하여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조손가정에 대한 실체와 그 변화추이를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조손가정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성인자녀의 별거나 이혼, 장기간 가출, 경제적 어려움, 실직, 아동학대, 방임 및 유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3, 4, 5, 14].

조손가정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환경이 일반 가정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그 가운데 건강상의 문제, 손자녀 교육과 훈육의 문제, 사회적 소외 등을 경험하고 있다 [10]. 또한 조부모들이 어린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심한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 등과 같은 심리 정서적 문제를 갖게 된다 [1, 6, 7, 9, 10, 11]. 문제는 성인자녀의 역할을 대신해서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경제적 어려움 등 다중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큰 심각성이 존재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은 조부모는 물론 어린 손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양육비와 교육비, 의료비, 가계부채도 경제적 악화를 초래하며 고령으로 노동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자녀양육은 노동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2].

현재 우리나라의 조손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위기가정서비스, 빈곤가정위기지원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등이 제공되고 있거나 향후 지원이 모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미약한 상태다. 결국 조손가정들은 자녀, 형제, 친척과 같은 사적 지지망 보다는 공공부조 급여나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처럼 공적 지지망에 주로 의존하게 되는데 [10]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조손가정의 경제상태가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과 행복감, 그리고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3, 14] 향후 제도적으로 조손가정을 위한 경제적 안전망을 더욱 내실 있게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조손가정 조부모의 보육이나 양육, 정서적인 발달이나 정신건강, 가족기능적인 측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소득원천이나 빈곤율과 같은 가구경제상황이나 이전소득의 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조손가족의 실태를 우리나라의 가구구조의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손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생활비원천의 결정요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였다. 결론부분으로

조손가구의 조부모의 경제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손가구의 생활비원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자료 중 조손가구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손가구생활비 원천이며 항목구성은 1.본인(조손가구주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 2. 자녀(자녀나 친인척의 지원), 3. 국가(정부나 민간 사회단체의 지원)로 구성하였다. 조손가구의 생활비 원천을 도출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식은 다음과 같다.

$$\ln\left(\frac{p}{1-p}\right) = \beta_0 + \beta X_1 + \beta X_2 + \beta X_3 + \beta X_4$$

여기서 종속변수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항목에 각기 로그값을 주었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사회활동, 그리고 교육수준(순서대로 X_1, X_2, X_3, X_4)로 구성하였다.

<변수의 구성>

	본인	자녀	국가
변수	예금, 적금, 연금, 부동산, 주식	자녀, 친인척	국가, 민간단체

<종속변수 빈도>

	본인(비율)	가족(비율)	국가(비율)
해당사항없음	17,233 (37.93)	11,111 (40.02)	6,677 (24.05)
해당사항있음	10,531 (62.07)	16,653 (59.98)	21,087 (75.95)
계	27,746 (100)	27,764 (100)	27,764 (100)

<독립변수 구성>

성별	연령별	사회활동-친목단체	교육수준
남	65-69	O	미취학
	70-74		초등학교
	75-79		중학교
	80-84		고등학교
여	85-89	X	고등학교
	90-94		대학교 이상
	95이상		

3. 연구결과

분석결과, <표 1>을 살펴보면, 가구주를 기준으로 본 조손가구의 조부모의 연령은 65세 이상이 97,495명으로 전체 조손가구의 78.99%를 차지하였다.

표 1. 조손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s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구분	수	%
연령	40-49세	647	0.52
	50-59세	9,768	7.91
	60-64세	15,519	12.57
	65세 이상	97,495	78.99
성별	남성	58,597	47.47
	여성	64,832	52.53
교육수준	중졸이하	94,962	76.94
	고졸	20,059	16.25
	2년제 대졸	1,972	1.60
	4년제 대졸	5,198	4.21
	석사이상	1,238	1.01
지역	서울	38,250	17.53
	부산	15,519	7.11
	대구	12,141	5.56
	인천	11,249	5.16
	광주	6,246	2.86
	대구	5,616	2.57
	울산	3,304	1.51
	경기	41,282	18.92
	강원	9,921	4.55
	충북	7,787	3.57
	충남	11,332	5.19
	전북	11,696	5.36
	전남	12,690	5.82
	경북	14,354	6.58
	경남	13,842	6.34
	제주	2,946	1.35

출처: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손가구응답항목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를 규정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조

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의 기준과 상이하다. 아울러 성인 손자녀가 연로한 조부모를 부양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회과학적 정의에 입각한 조손가구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마찬가지로 <표 2>의 조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18~19세의 손자녀가 포함되어있다. 가구주를 기준으로 조부모의 성별을 살펴보면 조부가 47.47%로 조모가 가구주인 경우(52.53%)와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76.94%로 가장 많았고, 고졸 16.25%, 4년제 대졸 4.21%, 2년제 대졸 1.60%, 석사이상 1.01%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지역이 각각 18.92%, 17.53%를 나타냈지만,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하면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북, 경남, 전남에서 높게 나타나 농촌형 조손가족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조손가구의 손자녀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2. Socio-demographics of Grandchildren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구분		수	%
연령	0~4세	13,900	8.55
	5~9세	24,946	15.34
	10~14세	43,317	26.64
	15~19세	80,445	49.47
성별	남	86,782	53.37
	여	75,826	46.63

다음으로 <표 3>을 살펴보면, 조손가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73.00%로 경제활동 부분에서 많은 제약과 소득활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에서도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전체응답자의 47.14%로 지속적인 소득을 통한 경제활동이 아닌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구의 직업은 농림어업이 36.10%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노무가 25.35%로 나타났다. 이는 조손가구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단순노무직이나 일용직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손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양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손가족은 생활비의 대부분을 비동거자녀(34.15%)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18.49%)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직접 직업 활동(18.25%)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10.58%)의 노인 소득보전 기능이 완전치 않아서 조손가족의 소수만이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손가구의 경제 및 사회활동상 특성
Table 3. Socio-economic Activities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구분	수	%	
경제활동	주요근무	30,142	24.42
	부로근무	1,918	1.55
	잠시업	1,267	1.03
종사상지위	안함	90,102	73.00
	임금근로자	14,049	42.16
	자영업(고용무)	15,709	47.14
	자영업(고용유)	1,865	5.60
고령자 생활비원천	무급가족종사	1,704	5.11
	1 본인 일/직업	26,512	18.25
	2. 예적금	9,669	6.58
	공적연금	15,540	10.58
	개인연금	3,943	2.68
	부동산	5,255	3.58
	주식/채권/펀드	212	.014
	3. 동거자녀	2,541	1.73
	3. 비동거자녀	50,156	34.15
	3. 친인척	3,125	2.13
	4. 국가/지자체	27,155	18.49
	4. 이웃/단체	1,271	0.87
	기타	1,495	1.02
	직업	관리자	343
전문가		1,488	4.46
사무		1,146	3.44
서비스		1,980	5.94
판매		2,615	7.85
농림어업		12,031	36.10
기능원		2,067	6.20
기계조립/조작		3,203	9.61
단순노무		8,447	25.35
군인		7	0.02
사회활동	사회단체	41,360	2.52
	경제단체	24,926	1.52
	문화단체	65,458	3.99
	정치단체	4,035	0.25
	종교단체	181,052	11.05
	지역단체	25,467	1.55
	친목단체	212,090	12.94
	교육단체	31,464	1.92
	기타단체	2,817	0.17
	없음	737,713	72.23

<표 4>는 조손가정의 손자녀 특성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손가구는 9세 이하가 23.89%, 10대가 51.24%로 나타나 대부분 어린 손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동보육은 조부모가 53.03%, 학원은 16.34%, 방과 후 학교가 11.09%로 나타나 조손가구의 손자녀들은 보육에 있어서 대다수가 조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겠다.

표 4. 조손가구의 손자녀 관련 특성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Grandchildren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구분		수	%
연령	9세 이하	38,846	23.89
	10-19세	83,322	51.24
	20-29세	34,429	21.17
	30-39세	5,654	2.48
	40-49세	343	0.21
성별	50-59세	14	0.01
	남성	86,782	53.37
아동보육	여성	75,826	46.63
	부모	19	0.02
	조부모	40,719	53.03
	기타 가족	622	0.81
	도우미	232	0.30
	유치원	3,692	4.81
	어린이집	6,861	8.94
	기타 시설	917	1.19
	방과후학교	8,518	11.09
	학원	12,550	16.34
	아동혼자	2,562	3.34
기타	90	0.12	

다음으로 생활비원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전체의 유의성을 판별하기 위한 지표로 AIC, SC, -2Log L를 이용하였다.

3.1. 생활비의 원천이 본인인 경우

분석결과를 검토해 보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지표(AIC, SC, -2Log L)를 기준을 모형값이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즉, 독립변수(성별, 교육수준, 사회활동-친목단체, 나이) 모두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유의하였다.

Criterion	Model Fit Statistics	
	Intercept Only	Intercept and Covariates
AIC	36857.18	34168.161
SC	36863.134	34245.568
-2 Log L	36855.180	34142.161

$R^2 = 0.6143$

변수	Wald Chi-Square	Pr > ChiSq
성별	767.8321	<.0001
교육수준	370.5763	<.0001
사회활동-친목단체	23.3915	<.0001
나이	591.2165	<.0001

3.2. 생활비의 원천이 가족 지원인 경우

생활비원천이 가족인 경우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이 그렇지 않은 모형과 비교하여 모형값이 작았고 동일한 방향성을 보인 것으로 보아 모형이 유의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독립변수 중 사회활동-친목단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Criterion	Model Fit Statistics	
	Intercept Only	Intercept and Covariates
AIC	37377.366	36031.754
SC	37383.321	36109.161
-2 Log L	37375.366	36005.754

$R^2 = 0.3818$

변수	Wald Chi-Square	Pr > ChiSq
성별	608.9788	<.0001
교육수준	113.4238	<.0001
사회활동-친목단체	4.7332	0.0296
나이	284.012	<.0001

3.3 생활비의 원천이 국가 지원인 경우

성별, 사회활동-친목단체 변수 같은 경우 종속변수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전체적으로 모형의 유의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연령별, 교육수준은 유의미하였으면 전체적으로 모형의 값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손가구의 소득원천인 “국가”인 경우 성별과 역의 상관관계, 연령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교육수준과는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Model Fit Statistics		
Criterion	Intercept Only	Intercept and Covariates
AIC	30633.775	29625.064
SC	30639.729	29702.471
-2 Log L	30631.775	29599.064

$$R^2 = 0.3041$$

변수	Wald Chi-Square	Pr > ChiSq
성별	0.0198	0.8881
교육수준	593.1901	<.0001
사회활동-친목단체	14.1774	0.0002
나이	90.8542	<.0001

<표 5>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손가구의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에 비해 스스로 생활비를 버는 경우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학력군이 저학력 군에 비해, 사회활동이나 친목단체활동이 활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연령의 경우 다른 독립 변수군이 단선적 관계(linear relationship)이었다면 곡선적 관계(curvilinear relationship)를 보였다.

한편, 종속변수 유형이 “자녀”인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군 중 연령은 음의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세대인 부모세대가 조부모나 손주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조부모의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 상태나 나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력과 소득원천-자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5. 생활비원천 로지스틱 회귀분석

Table 5. Logistic Regression of Types of Income Sources

변수	분류	세부	개인		가족		국가	
			β	exp ^β	β	exp ^β	β	exp ^β
상수			-0.173 7**	0.841	0.40** *	1.489	-3.068 7***	0.046
성별(여성 기준)	남성		0.4189 ***	1.52	-0.36* **	0.693	-0.004 95	0.995
		미취학	-0.417 6***	0.659	0.1285 ***	1.137	1.9059 ***	6.725
학력(대학 이상 기준)	초졸	-0.271 2***	0.762	0.206* **	1.229	1.4312 ***	4.184	
	중졸	-0.175 5***	0.839	0.0969 **	1.102	1.1754 ***	3.24	
	고졸	0.1886 ***	1.208	-0.207 3***	0.813	0.8958 ***	2.449	
사회활동-친목단체	해당됨	0.1273 ***	1.136	0.0561 *	1.058	-0.259 6***	0.771	
나이(95세이상 기준)	65-69	0.9269 ***	2.527	-0.700 9***	0.496	0.0377	1.038	
	70-74	0.3036 ***	1.355	-0.306 4***	0.736	0.4024	1.495	
	75-79	0.1521 **	1.164	-0.155 6**	0.856	0.4672	1.596	
	80-84	-0.278 4***	0.757	0.0963	1.101	0.5171	1.677	
	85-89	-0.250 5***	0.778	-0.035 7	0.965	0.6265	1.871	
	90-94	-0.084 8	0.919	0.2294 **	1.258	-0.112 3	0.894	
모형 적합도 -2LL(df)sig.		34142.161*** (12)		36005.754*** (12)		29599.064*** (12)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점차 급증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생활비 원천 유형 요인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조손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적 방안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방증된 것과 같이 많은

고령의 조부모가 성인 이전의 어린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손자녀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위탁양육비, 교육, 생계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보다 농촌 지역의 조손가정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복지자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촌지역 조손가정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현금급여를 통한 조부모들의 경제적 지원정책과 함께 손자녀들의 나이가 어려 지속적으로 보육 및 교육 관련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들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H-S. Kim,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emotional behavior in grandparent -grandchildren family*, Ewha Women's University Dissertation, 2004.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 Book Vol. 5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 [3] C-S. Park,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ies, raising experiences and life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2, pp. 105-125, 2010.
- [4] H-O. Park, *Grandparents as foster parents: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care reten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9, No. 1, pp. 1-28, 2013.
- [5] R. Sands, G. Goldberg-Glen, and J. Shin, *The voices of grandchildren of grandparent caregivers: A strengths-resilience perspective*, Child Welfare, Vol. 88, No. 2, pp. 25-45, 2009.
- [6] P. Rachel, and M. Dorothy, *Living with Grandchildren: The effects of custodial and coresident households on the mental health of grandmothers*,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ging, Vol. 6, No. 4, pp. 269-289, 2000.
- [7] W. Renee, *You're not alone...You're one in a Million*, Child Welfare, Vol. 75, No. 5, pp. 619-635, 1996.
- [8] H-S. Joh, I-S. Kim, H-R. Kim, H-R Kim, and E-J. Sin, *Family welfare*, Hakjisa, 2011.
- [9] S-H. Yoon, *The factors relevant to grandmothers' parenting stress in a grandparents-headed household*,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 Dissertation, 2005.
- [10] H-K. Choi, *Depression in low income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tudy, Vol. 22, No. 3, pp. 207-222, 2002.
- [11] H-J. Choi, *Study on the profile of depression and the mechanism of depression among the custodial grandparents*, The Korean Academy of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Vol 29, No. 8, pp. 122-149, 2008.
- [12] S-J. Lee, *The burdens and the welfare demands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in rural area and the welfare*

policies for them, Daegu University Master Dissertation, 2008.

- [13] N-Y. Song, *Grandparents of the grandparrents-grandchildren family'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ung S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ter Dissertation, 2006.
- [14] J-H. Lee, and G-H. Han, *Intergenerational triads of grandparent-headed famil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ustodial grandmothers in rural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tudy , Vol. 28, No. 1, pp. 177-196, 2008.

조손가구의 생활비원천 유형 결정요인 연구

황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요 약

본 연구는 증가하는 우리나라 조손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조손가구의 생활비원천 유형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의 경제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표본자료 중 조손가구를 분리하여 사용하였고, 조손가구의 생활비원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이 남성인 경우, 연령대가 낮은 경우,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의 생활비를 충당하여 가계를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나 혹은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경우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많았다. 그리고 자녀나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경우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의 빈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조손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의 2012 년도 교내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되었다. 연구에 도움을 준 통계청과 통계청 전문가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자료프로세스를 도와준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최요석과 김경훈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Myung Jin Hwang is Associate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at Korea University. He currently serves as Head of Social Welfare in Undergraduate Program at KU. He received Ph.D. in Social Work at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in 2003. He also received Master of Social Work at Columbia University and Master of Business and Administration at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in 1997 and 1994 respectively. From 2006 to 2008, he directed Social Statistics Division at Statistics Korea. Before, he had taught social welfare at Wichita State University as Assistant Professor from 2004 to 2006.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population, ageing and elderly welfare, and social statistics. Currently he serves as Head of Research Committee, Population Association.

E-mail address: mojihwang@korea.ac.kr